

'해외시장에서 바라본 2012년 수출전망'

(2011.12.13)

[목차]

요약.....	1
I. 2012 수출전망 개요.....	2
II. 지역별 수출전망.....	5
III. 품목별 수출전망.....	19

작성 : 조사총괄팀 문진욱 과장(jw2003@kotra.or.kr)

감수 : 통상조사처 한선희 처장(shan@kotra.or.kr)

요 약

- 2012년 우리 수출은 2011년 대비 9.4% 증가한 6,094억 달러 전망
 - 사상 최초 6천억 달러 돌파 및 무역규모 1조 달러 유지 예상

<우리나라 수출 추이 및 전망>

(단위 : 억 달러, %)

년 도	2009	2010	2011	2012
금액(증감률)	3,635(△13.9)	4,664(28.3)	5,570(18.9)	6,094(9.4)

주 : 증감률은 전년대비, 2011년은 1~11월 실적을 바탕으로 한 추정치

자료원 : KOTRA 해외무역관(바이어, 주재상사 등 1,416개 정보원 의견 종합)

- 선진국發 경기둔화에 따른 세계경제 불안감으로 2011년 대비 수출 증가율은 둔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
- 신흥시장의 수출비중 확대 지속
 - 중국권(12.5%), 아시아(10.5%), 중남미(11.8%), 중동(13.1%), CIS(11.1%) 등 신흥시장의 수출증가세 유지
 - 전체대비 신흥국 수출비중(1~11월) : 71.7%(2010년) → 72.5%(2011년)
 - 재정위기 여파로 구주(△1.4%)는 수출 감소가 우려되지만, 일본(7.6%), 북미(6.7%) 수출은 증가세를 유지 할 것으로 기대
- 자동차 및 부품, 석유제품 수출 호조 전망
 - 한국産 자동차의 인기와 FTA 효과로 완성차뿐만 아니라 부품류 수출확대 기대, 高유가 지속으로 석유제품 수출도 증가예상
 - 기계류, 무선통신기기, 가전, 철강 등은 경기둔화에도 불구하고 국산제품의 경쟁력 강화로 수출이 소폭 상승 기대
 - 유럽재정위기로 선박류 수출은 큰 폭 감소가 우려되며, 컴퓨터 및 주변기기도 전체적인 수요 감소로 수출이 소폭 줄어들 것으로 전망

I. 2012년 수출전망 개요

- 2012년 우리수출은 전년 대비 9.4% 증가한 6,094억 달러 전망
 - 사상 최초 6천억 달러 돌파 및 무역규모 1조 달러 지속 예상
 - 선진국發 세계경제 불안에 따른 실물경기 위축으로 인해 2012년 수출증가율이 다소 큰 폭 둔화될 것으로 우려

<우리나라 수출 추이 및 전망>

(단위 : 억 달러, %)

년 도	2009	2010	2011	2012
금액(증감률)	3,635(△13.9)	4,664(28.3)	5,570(18.9)	6,094(9.4)

주) 증감률은 전년대비, 2011년은 1~11월 실적을 바탕으로 한 추정치

자료원 : KOTRA 해외무역관(바이어, 주재상사 등 1,416개 정보원 의견 종합)

- 對신흥국 수출비중의 지속적인 확대
 - 아시아(10.5%), 중남미(11.8%), 중동(13.1%), CIS(11.1%) 등 對신흥국 수출의 증가가 전체 수출 증가세를 견인할 것으로 예상
 - 최대수출국인 중국의 인플레이션 둔화에 따른 긴축정책완화로 수입 수요가 유지되어 12.5%의 수출 증가세 기대
 - * 中 중앙은행 위안화 예금 기준률 0.5% 인하 조치(12월 5일부)
 - 신흥시장 중에서도 구매력이 낮아 가격경쟁력이 중국 등에 비해 열위인 아프리카(8%) 수출은 다른 지역에 비해 낮을 전망
 - 유럽재정위기 심화, 미국 경제의 낮은 성장세로 對선진국 수출은 신흥국 대비 부진할 것으로 전망
 - 재정위기 여파에 따른 실물경기 위축으로 對유럽 수출은 2011년 대비 1.4% 감소 우려
 - 단, 일본(7.6%), 북미(6.7%) 지역 수출은 상대적으로 양호할 것으로 기대되어 對선진국 전체 수출도 증가세 유지

< 지역별 2011~2012 수출 전망 >

(단위 : 백만 달러, %)

지역	2011		2012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총계	557,019	18.9	609,434	9.4
중국권	181,569	15.5	204,300	12.5
아시아	100,525	24.5	111,056	10.5
유럽	62,916	3.0	62,013	△1.4
북미	60,726	12.6	64,800	6.7
일본	40,292	43.0	43,335	7.6
중동	36,277	19.5	41,047	13.1
중남미	45,233	25.0	50,584	11.8
아프리카	14,800	51.3	15,991	8.0
CIS	14,681	32.8	16,308	1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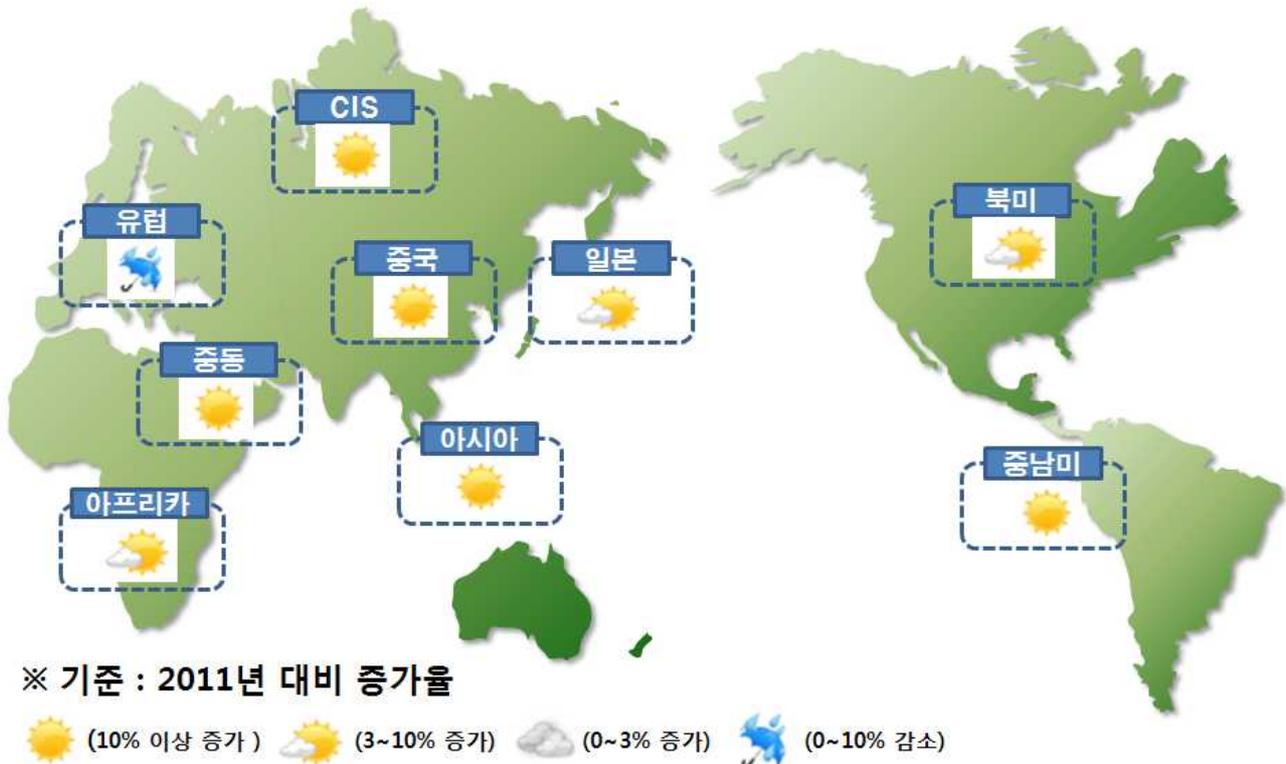
주1) 증감률은 전년대비, 2011년은 1~11월 실적을 바탕으로 한 추정치

주2) 북아프리카지역은 '중동'에 포함

주3) 아시아 지역은 동남아, 서남아, 대양주 지역의 합계

자료원 : KOTRA 해외무역관(바이어, 주재상사 등 1,416개 정보원 의견 종합)

< 2012년 세계 지역별 수출기상도 >



□ 자동차 및 부품, 석유제품 수출의 높은 증가세 예상

- 한국 자동차의 수요 증가로 자동차 및 부품의 수출증가세가 높고, 석유제품도 2011년에 이어 수출 호조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
- 무선통신기기, 가전제품, 철강 등은 글로벌 경기 둔화에도 불구하고 신흥시장에서의 수요 확대에 따라 소폭 증가 기대
- 반도체, 평판디스플레이, 섬유 등은 글로벌 경제 부진에 따른 수요정체로 수출증가세가 미미할 전망
- 컴퓨터 및 주변기기는 스마트 기기 보급 확대에 따른 수요 감소로 수출이 줄어들고, 유럽부채위기 영향으로 선박 수출의 감소폭이 클 것으로 우려

<주요 품목별 2012년 수출 전망>

품목명 (MTI코드)	2012년 연간 전망 (2011년 대비 증가율)									
	전체	중권	아시아	유럽	북미	중동	일본	중미	아프리카	CIS
일반정밀기계 (71,72,73,75,79)										
자동차 (741)										
자동차부품 (742)										
평판디스플레이 (836)										
반도체 (831)										
무선통신기기 (812)										
가전 및 부품 (82)										
컴퓨터 주변기기 (813)										
섬유 및 의류 (7)										
철강제품 (61)										
석유화학 (21)										
석유제품 (133)										
선박류 (746)										

(10% 이상 증가)
 (3~10% 증가)
 (0~3% 증가)
 (0~10% 감소)
 (10% 이상 감소)

자료원 : KOTRA 해외무역관(바이어, 주재상사 등 1,416개 정보원 의견 종합)

II.

지역별 수출 전망

가. 종합

- 對중국 수출은 증가세 다소 둔화되나 여전히 높은 수준 유지
 - 중국경제의 경착륙 우려완화로 對중국권 수출은 증가세가 유지되지만 2011년에 비해 낮은 12.5%의 증가 예상
 - 전체적인 경기둔화에도 중국정부의 수입확대정책, 내수시장 팽창, 위안화 평가 절상 등으로 수출증가세 지속 전망
- 對신흥시장 수출증가 가속화 예상
 - 인도, 브라질, 러시아 등 주요 신흥대국의 경제성장 지속으로 자본재뿐만 아니라 소비재 등의 한국산 제품 수요 증대 기대
 - 신흥국은 선진국發 경제위기의 직접적 영향이 낮고 중산층 소비 계층이 지속 팽창으로 수입수요 유지
 - 브라질 월드컵(2014년), 러시아 동계올림픽(2014년) 등 신흥국에서 개최예정인 국제스포츠 행사의 본격적인 준비에 따른 투자 활성화
 - 공항, 도로 등 대형 프로젝트 및 인프라 투자 본격 시작으로 건설기계, 설비 등의 수요도 증가
- 對선진국 수출증가세 둔화 우려
 - 재정위기 여파로 對유럽 수출은 2011년 대비 감소할 것으로 우려되지만 미국, 일본 수출은 상대적으로 양호할 것으로 전망
 - 한-EU & 한-미 FTA, 엔高, 선진국 시장에서의 한국제품 점유율 확대 등으로 전체적인 對선진국 수출도 증가세 유지

나. 중국권 [12.5% 증가] * 중국, 홍콩, 대만

□ (중국) 2012년 對중국 수출의 긍정적 요인

- 중국정부의 수입확대정책, 내수시장 팽창, 위안화 평가절상 등 對中 수출 증가세 견인
 - 중국정부는 무역불균형 해소와 경제성장 지속을 위해 자본재, IT, 첨단기술 등의 수입 장려책 지속(2011년 10월까지 수입증가율 26.81%)
 - 중국 소비시장 매년 16~18%대의 급성장(매년 3,800억 달러 신규시장 창출)
 - 2011년 5%, 2012년 2% 수준의 위안화 평가절상 전망
- 내수 및 내륙 시장 확장 지속
 - 중국정부의 내수시장이 고도화되고 연안을 벗어나 중서지역으로 산업이 확산되어 내륙지방의 소비가 급격하게 증가
 - *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선전, 항저우 등 주요 도시 1인당 GDP 1만 달러 시대
 - * 총 31개 성시중 규모가 작은 2개 지역(칭하이성, 광시자치구)을 제외한 주요 29개 성시의 도시와 농촌 주민소득 증가율이 10%를 넘어 물가상승률(상반기 CPI 5.4%)을 상회
 - 농민 등 중·저소득 계층의 소득 증대
 - * 주요 29개 성시의 농촌주민 소득증가율이 도시주민 소득증가율을 추월

□ (중국) 2012년 對중국 수출의 부정적 요인

- 2010년 중국 GDP는 10.3%의 고성장을 달성한 이후 2011년 1분부터 성장률이 계속 둔화되고 있는 상황
 - 2011년 1분기 9.7%, 2분기 9.5%, 3분기 9.1%, 4분기 8.8%(추정치)
 - 2012년 중국경제 성장률은 8.6~8.7%로 예측(중국 현지기관)
- 중국의 수출경기 둔화 우려
 - 對선진국 수출 감소와 위안화 절상, 인건비 상승에 따른 가격경쟁력 약화 → 수출경기 둔화 → 한국産 원부자재 수요 감소
 - 중국의 수출둔화가 경기부진으로 이어질 경우 내수경기가 침체 되면서 우리의 對중국 원부자재, 소비재 수출 등 타격

○ 中 중소기업 자금난에 따른 수입수요 감소

- 2011년 동안 高물가에 따른 긴축정책으로 중국 중소기업의 자금난이 심해 우리기업들의 수출주문이 감소하고 채권회수에도 어려움 발생
- 중국에 진출한 우리나라 투자기업들도 현지 거래기업으로부터 대금회수가 쉽지 않는 경영애로가 발생

□ (중국) 중국소비패턴의 고도화, 활용전략 마련 필요

○ CSR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착한기업' 생산제품을 선호

- 조사에 따르면 중국 소비자 86%가 공익활동을 하는 기업을 다른 기업보다 더 신뢰
- * 최근 기업, 제품 광고에서도 공익 콘셉트를 강조해 대중들의 공감대 유도

○ 남성들의 소비력이 증가함에 따라 남성고객을 유치하기 위한 마케팅이 활발하게 전개

- 루이비통의 중국매출액이 전세계 루이비통 매출액의 15%를 차지하고, 중국남성이 절반가량의 매출을 차지
- * 타이핑양백화(太平洋百貨) 관계자에 따르면 백화점 고객 중 남성이 차지하는 비중은 30%지만 여성소비자에 비해 평균단가가 매우 높음

○ 레저와 관광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면서 여행인구 급증

- 중국 관광업무보고에 따르면 2010년 중국인 해외여행객이 5,739만 명으로 전년대비 20.4% 증가하는 등 해외여행객이 빠르게 증가
- * 최근의 위안화 평가절상으로 중국인의 해외관광이 늘면서 항공업이 호황
- * 2011년 방한 중국 관광객 200만 명 돌파, 소비액 2.7조원 규모

○ 쇼핑시간이 부족한 직장인, 실속파 소비자들로 인해 타오바오(陶寶), 징둥상청(京東商城) 등 온라인 쇼핑몰 구매 확대

- 2011년 중국 온라인 시장규모는 1,975억 위안으로 2010년 동기 대비 73.4% 증가
- * 특히 라서우왕 라서우왕(拉手網) 등 공동구매사이트가 인기

□ (대만) 수출부진으로 수입수요 감소 우려

- 대만의 수출증가율은 2011년 13.18%→2012년 6.68%로 대폭 둔화가 예상되며, 이로 수입증가율도 13.27%→6.25%로 낮아질 전망
 - 글로벌경기 둔화로 우리나라로부터 수입이 많은 IT, 석유화학, 철강 등의 제품 수요 감소가 예상
 - * 대만 주요 언론에 따르면 IT기업들은 실적악화로 인해 직원 감원, 감봉, 무급휴가 등을 실시하는 기업이 늘고 이는 가계의 실질구매력 하락으로 연결
- 세계시장에서 대만의 경쟁력이 높아지고 있는 스마트폰, 태블릿 PC 제조사에 대한 부품 수출 시도 확대 필요
 - 국내 중소기업 C社는 월드챔프사업을 통해 HTC 납품을 시작했으며, 대만 IT 기업을 공략하기 위한 국내 부품기업의 마케팅도 증가세
- 新한류 열풍으로 일본제품의 아성인 대만시장에서 젊은층을 중심으로 한국산 제품 선호 현상 확대
 - 대만 주류 유통 채널과 연계한 한류 마케팅으로 소비재 등 대만 판로 개척 가능성 증가

□ (홍콩) 중국 내수시장 성장 지속이 가장 큰 변수

- 중국의 내수시장 확대에 따른 소비증가로 홍콩의 對중국 수출도 증가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
 - 우리나라 對홍콩 수출의 60% 가량이 중국으로 재수출되는 구조
 - 따라서 중국 위안화 강세는 우리나라의 對홍콩 수출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분석
- 對홍콩 수출 주력제품의 호조 기대
 - 휴대전화, 가전기기 등 전자제품은 중국, 홍콩 내수시장 개선, 중국 관광객 증가와 한류 영향으로 증가세 전망

다. 아시아 [10.5% 증가]

□ (동남아) 2012년 경제성장 둔화에도 수출 증가세 유지 전망

- 선진국 경기 부진에 따른 원자재 수출도 둔화 등으로 2011년 대비 동남아 국가들의 경제성장률은 다소 낮아질 것으로 예상
 - 하지만 전체적인 소득증대에 따른 내수시장 확대로 수입경기는 양호할 것으로 분석
 - * 인도네시아의 경우 총 GDP의 66% 이상을 차지하는 민간소비 확대로 한국산 주요 소비재 수출 증가세 증가 예상
 - * 필리핀은 9,400만 명 인구의 내수시장을 기반으로 IT 및 소비재 수요 확대

□ (동남아) 정부 주도의 인프라 투자 증가

- 경제성장을 지속하기 위한 각국 정부의 인프라 확충 프로젝트로 우리기업의 참가 기회 확대 및 한국산 자재 수출 증가 기대
 - (인도네시아) 2012년도 인프라 건설 예산을 19.3% 확대 편성
 - (말레이시아) 제 10차 경제개발 계획으로 건설, 기계 등 수요 증가 예상
 - (태국) 홍수 예방을 위한 New Thailand 프로젝트에 5년간 30조원 투자
 - (싱가포르) 교통, 통신 인프라 구축 등 기존 프로젝트 지속과 주룽섬 등 산업인프라 시설, 마리나베이에 추가 MICE 시설 확충 등 프로젝트 증가

□ (동남아) 한국제품의 시장점유율 확대

- 우리 대기업 제품의 시장점유율 확대와 이에 따른 프리미엄 이미지로 부품 등 연계수요 증대
 - 일제 자동차에 비해 낮던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인지도가 개선
- 한국산 자동차, 가전 등 시장점유율 상승과 현지진출 기업 증가로 부품 수출도 확대 기대

□ (서남아) 꾸준한 경제 성장세 지속

- 서남아 주요 3개국(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모두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은 경제성장률 전망
 - 2012년 인도 8%대, 방글라데시 6%, 파키스탄 5%대 경제성장률 예상
- 경제 개발에 따른 新중산층 급성장으로 내수시장 확대
 - 인도 소비주도 중산층 : 2011년 1.6억 명 → 2015년 2.6억 명
 - * 금융위기로 직원감축, 임금을 동결한 인도 기업들은 최근 고용을 확대하는 추세

□ (서남아) 시장 전반에 걸친 수입수요 확대

- (인도) 제조업 투자 확대와 산업 시설 확충에 따라 기계류 수요가 꾸준히 증가
- (파키스탄) 고부가가치 산업분야의 제조업 기반이 취약해 기계류, 플라스틱, 합성수지 등 중간가공 원자재를 대부분 수입에 의지
 - 우리나라의 對파키스탄 주요 수출품도 철강, 의약품, 플라스틱, 합성섬류가 전체 수출의 70~80%를 차지
- (방글라데시) 기초부자재의 관세가 지난해부터 7%에서 5%로 인하되는 등 기초원부자재, 자본재 등은 수입 의존도 증가
 - 자본재의 경우 신회계년도상 일부품목에 대한 관세가 인상이 되지만 인프라사업 확대로 수입 지속 증가

□ (서남아) 활발한 인프라 투자

- (인도) 2012~2017년 동안 인프라 구축에 1조 달러 투자 예정, 인도의 성장동력 지속을 위한 교통, 전력 분야 집중 투자
 - * 1인당 인프라 투자비 : 중국 116달러 vs. 인도 17달러
- (파키스탄) 국제원조, BOT 등을 통해 전력발전, 도로건설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에너지 수입비중 감소를 위한 新재생에너지에도 투자 확대
- (방글라데시) 전력에너지 분야, 교통인프라 구축, 서민용 주택공급 확대 등 대규모 프로젝트 사업 발주 증가

라. 유럽 [1.4% 감소]

□ 유로 존 재정위기 확대에 따른 실물경기 타격

- 그리스뿐만 아니라 이탈리아, 스페인 등 경제대국으로 재정위기가 확대될 수 있다는 불안감 증폭
 - 주요국가의 긴축재정으로 전체적인 성장세가 둔화 불가피
-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각국의 정치 경제적 상이함으로 근본적인 문제점 해결 마련이 쉽지 않다는 점이 불확실성 확대

□ 소비시장 위축 지속

- 재정위기에 따른 불안감, 높은 실업률 등으로 소비심리는 2008년 금융위기 수준으로 급감
 - 독일, 영국, 프랑스 등 주요국가에서는 소비자들도 불필요한 지출을 최소화하는 절약형 트렌드가 대세
 - * 영국에서는 가격이 높은 자동차를 구매대신 임대해 타는 사람이 증가하고, 프랑스에서는 新제품보다 중고제품 거래가 인기

□ 실물경기 둔화가 한-EU FTA 효과 상쇄

- 한-EU FTA는 발효 이후 활용도는 점차 높아지고는 있으나 유로 존 위기 심화에 따른 실물경기 둔화로 부정적 영향 초래
 - 특히 對유럽 비중이 높은 선박 수출 감소가 크고, 소비침체에 따른 반도체, 디스플레이 수출도 감소할 전망

□ 유럽인들의 스마트 구매 패턴 활용 필요

- 경기둔화로 인한 스마트 구매 정착으로 품질대비 가격경쟁력을 가진 한국산 제품에 대한 선호도 증가
 - 이탈리아의 경우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유럽, 일본 등 선진국産 자본재 대신 한국산 자본재를 수입코자 하는 움직임 감지

마. 북미 [6.7% 증가]

□ (미국) 경기침체 우려 다소 완화

- 2011년 3분기 경제성장률은 2010년 4분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해 신용위기 이후 미국 경기침체 우려를 진정되는 분위기
 - 美 경제성장률 : 2010년 1분기 3.9%, 2분기 3.8%, 3분기 2.5%, 4분기 2.3%
2011년 1분기 0.4%, 2분기 1.3%, 3분기 2.5%, 4분기 2.5%
 - * 2011년 4분기 2.5%는 전망치
- 2012년 미국경제는 급격한 경기침체에 빠질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이지만 본격적인 경기회복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
 - 민간소비, 설비투자 등이 회복세를 보이고는 있으나 고용시장 개선이 더디고 주택시장 침체 지속으로 본격적인 소비회복 기대는 어려움

□ (미국) FTA로 미국시장 진출여건 큰 폭 개선

- 관세인하, 거래비용 감소 및 통관절차 간소화 등으로 미국시장 접근성 크게 향상
 - 우리나라의 對미 수출품목의 95.7%에 대해 5년 내 관세 철폐로 세계 최대시장인 미국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교두보 마련

한미 FTA의 대미수출 증대효과와 유망품목

- 한미 FTA 발효 시 대미 수출은 연평균 12.9억 달러 증가(기재부)
- FTA 발효시 관세철폐 효과로 자동차부품, 섬유, 전자 등 주력 공산품의 미국 시장 진출이 확대 예상
 - 低관세 품목도 미국시장의 규모가 크고, 가격경쟁이 치열한 상황이기 때문에 소폭의 관세인하 효과도 크게 작용할 것으로 기대
- 한미 FTA 중소기업 10대 수출유망 품목
 - 브레이크패드, 냉간단조부품, 볼트/너트, 폴리에스터섬유사, 카매트, 펌프, 볼베어링, 터치스크린, 모니터, 에폭시수지, 리튬일차전지

□ (미국) 美 경제, 低소비-低성장 시대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실질소득 감소로 소비지출 하락
 - 미국 금융회사의 소비자 대출 여건 강화와 소비자들의 부채축소 노력으로 소비여력 약화
 - * 美 가계부채 비율 : 135%(금융위기 이전) → 110%(2011년 상반기)
- 소비부진 장기화에 따른 본격적인 低성장 시대
 - 주택시장 및 고용상황 부진 지속으로 소비부진 장기화 우려
 - * 과거처럼 소비가 경제회복을 주도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의견이 지배적

□ (미국) 우리나라 주력제품 수요는 양호할 전망

- 대지진, 태국홍수 등으로 일본차 판매가 부진한 가운데 국산차의 판매증가세 지속
 - 브랜드 이미지 개선, 품질 및 가격경쟁력 등을 바탕으로 2011년 10월까지 판매량이 2010년 총 판매량을 초과
 - * 2011년 1~10월 판매증가율(전년 동기간 대비) : 도요타 -8.8%, 혼다 -5.3%
 - 자동차 판매 호조에 힘입어 자동차 부품에 대한 수요도 동반 상승
- 전반적인 소비지출 축소에도 불구하고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혁신적인 新제품에 대한 구매는 확대
 - 휴대폰 시장에서 스마트폰 비중 : 25%(2010.9월) → 37.4%(2011.9월)
 - 한국산 스마트 기기 완제품 및 부품 수요에는 긍정적 영향 전망

□ (미국) 불황 이후를 대비한 주요 기업들의 설비투자 증가

- 내수부진에도 불구하고 미국기업들의 자본재 수입수요 확대
 - 2011년 3분기 미국 기업들의 설비투자는 前분기 대비 17.4% 증가
 - * 美 기업들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원가절감과 수익성 개선 노력, 신시장 경기호조에 따른 수익향상으로 막대한 현금을 보유(2011년 상반기 기업 현금 보유액은 4,076억 달러로 사상 최고)

바. 일본 [7.6% 증가]

□ 2012년 경제성장률은 2.2% 전망

- 대지진으로 직격탄을 맞은 일본경제는 2011년 하반기부터 생산 및 소비의 회복 분위기로 전환
 - 그러나 태국홍수 피해, 엔高 등으로 회복세가 예상보다 느린 상황
- 내년 일본 경제는 피해복구에 따른 생산 증가 및 신흥국 중심의 해외수요 확대 등으로 플러스 성장 기대
 - 日 경제는 2010년 4분기~2011년 2분기까지 3연속 마이너스 성장

□ 일본경제의 위험요인, 원전사태에 따른 전력부족 장기화

- 대지진으로 정지된 원전이 2012년 상반기까지 재가동되지 못할 경우 전력부족에 따른 산업피해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
 - 일본은 정부와 국민들이 절전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 시키려고 하고 있지만 전력부족 장기화로 산업 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분석

□ 엔高 지속에 따른 한국 상품 수요 증가

- 엔고 장기화로 인해 가격대비 품질이 뛰어난 한국産 제품을 선호하는 분위기 증가
 - 엔화 대비 원화는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이고 있어 저렴하면서도 품질이 우수한 한국산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여건 조성
 - * '1달러 = 76엔' 환율이 6개월 이상 지속되면 50%가 넘는 기업이 해외로부터 원자재나 부품의 수입량을 증가시킨다고 응답

□ 한류(韓流)의 경제적 효과 본격화

- 일본에 진출한 우리나라 영화, 드라마, K-Pop 등 문화 콘텐츠의 영향력 확대는 한국산 제품의 이미지 제고에 큰 역할
 - 국내대기업 등의 제품 판매 효과가 높아지는 등 시장에서 긍정적인 영향으로 작용

사. 중동* [13.1% 증가] * 북아프리카 국가 포함

□ 高유가 지속에 따른 경제성장 지속

- 세계 경제성장 둔화에도 불구하고 국제유가는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중동 산유국들 경제여건은 양호 기대
 - 세계주요기관에 따르면 2012년 평균유가도 배럴당 100달러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
 - * 세계유가전망(평균) : 2010년 US\$78 → 2011년 US\$105 → 2012년 US\$100
- 이집트, 시리아 등 중동의 민주화 운동, 이란 핵문제 등 따른 정치적 상황으로 일부국가 수출은 부정적인 영향도 우려

□ 인프라 건설 및 플랜트 프로젝트 시장 확대

- 2011년 11월 기준 對사우디 건설 프로젝트 수주실적은 155억 달러로 전체 해외 건설 수주실적의 35% 기록
 - 2012년에도 우리기업의 기자재 수출확대로 이어질 전망
- 2011년 글로벌 경기둔화와 민주화 사태 등으로 다소 부진했던 프로젝트 발주 등이 2012년에 재개될 것으로 기대
 - 민주화사태의 확산을 우려한 민심수습책으로 발전, 담수, 상하수도, 병원, 학교시설 등의 건설발주가 활발할 것으로 예상
 - * UAE 2012년에 철도, 석유화학단지, 병원신축 등에 170억 달러 투자 계획
 - * 쿠웨이트 경제개발 계획으로 1,200억 달러 투자 예정
 - * 리비아는 카다피 정권 붕괴 이후 1,200억 달러 재건사업

□ 한국産 제품 인지도 향상에 따른 긍정적 영향

- 우리대기업의 대형프로젝트 수주, 자동차, IT 제품 등 주력제품의 보급 확대로 전체적인 한국산 제품 수요 증가 기대
 - 특히 한류가 현지 젊은 층에게 인기를 끌면서 이들을 중심으로 한국산 제품에 대한 선호도 동시에 증가

아. 중남미 [11.8% 증가]

□ 선진국 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성장세는 둔화

- 미국, 유럽의 경기침체에 따른 자원수요 감소와 높은 인플레이션 등의 영향으로 경제성장률이 2011년 대비 하락 예상
 - 하지만 유럽재정위기 등에 따른 수출 감소 등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직접적인 피해는 적어 성장 둔화폭이 크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

□ 공공 인프라 투자 확대

- 경제성장에 따른 각종 프로젝트 사업 추진과 이에 따른 한국기업 참가 기회 증가
 - (브라질) 2014년 월드컵, 2016년 올림픽 본격 준비에 따른 인프라 프로젝트 확대
 - (멕시코) 건설·엔지니어링 프로젝트 분야의 최근 국내기업 수주로 관심 증가
 - * 멕시코 KMS LNG 터미널 프로젝트, KST Norte II 프로젝트 국내기업 수주

□ 수입규제 강화로 우리기업의 피해 우려

- 경제호황, 현지화 강세 등에 따른 수입시장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한국산 제품의 시장점유율도 큰 폭으로 증가
 - (브라질) 한국산 인지도 향상으로 자동차, IT, 기계장비 등의 수요 급증
 - * 2011년 對브라질 국산자동차 수출증가율 : 2010년 대비 30% 증가
- 동시에 수입품에 대한 규제도 증가, 주로 중국산 저가제품을 대상으로 하는 규제가 많으나 우리기업도 동반 피해 우려
 - (브라질) 완성차 수입에 대한 공업세 인상에 이어 철강, 플라스틱 등 17개 품목을 대상으로 수입사전심사 실시
 - (아르헨티나) 2011년부터 수입허가제 대상 품목을 584개로 확대

자. 아프리카* [8.0% 증가] *Sub-Sahara 지역만 포함

□ 경제 성장률 다소 둔화 전망

- 2004~2007년 5~6%대의 성장을 보였던 아프리카 국가들도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으로 예년보다 낮은 성장 예상
 - 경기침체에 따른 글로벌 자원수요 둔화, 높은 실업률, 물가상승, 환율 변동폭 증가 등 경제적 어려움 증가

□ 설비투자 증가 추세는 지속

- (남아공) 낙후된 인프라 개선하기 위한 각종 프로젝트 발주 증가
 - 중장기 전력수급 계획 시행 확정, 철도, 항만, 송배전, 발전, 수처리 등 각종 현대화 프로젝트 착수
- (케냐) 국가경제개발계획 '비전 2030'의 일환으로 각종 대형 프로젝트 추진 예정
 - 라무항 종합프로젝트(220억달러), 콘자 테크노파크(100억달러), 타투 신도시(50억 달러) 등 프로젝트 2012년부터 본격 개시

□ 수입시장 규모의 확대

- 남아공 등 주요 국가의 경우 소득수준 향상으로 소비재 및 경제성장에 필요한 자본재 수입수요가 증가
 - 남아공의 경우 자동차, 석유제품, 기계류, 석유화학 등 한국산 제품의 수출이 크게 증가세
 - * 對남아공 최대 수출품목인 자동차는 2010년 남아공 월드컵 당시 공식스폰서로 활동해 인지도가 크게 향상
- 다만 아직 대부분 아프리카 국가의 경우 낮은 소득수준으로 우리나라 제품에 대한 큰 폭의 수요 확대는 어려운 전망
 - 수단 등 低소득국가의 경우 여전히 가격경쟁력이 구매의 가장 큰 기준
 - * 중국, 인도는 차관제공 등을 통해 아프리카 저개발국 진출 활발

차. CIS [11.1% 증가]

□ 경제 회복 기대감 확대

- 高유가 지속은 CIS 중심국인 러시아 경제성장에 큰 도움을 주고 있으며, 이는 동시에 주변국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상황
- 2012년 유럽재정위기의 악화 여부에 따른 유가하락 등의 변수에 대한 우려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경제 회복세를 기대하는 분위기

□ 소득수준 증가에 따른 구매력 향상

- 금융위기 이후 가격에 민감한 소비패턴에서 경제회복에 따라 차츰 품질을 중요시하는 트렌드도 확산
 - 경제위기에도 큰 영향을 받지 않은 부유층과 새로운 중산층의 수요가 중요한 비중 증가
 - * 일반 소비재의 경우에는 여전히 중국, 베트남 등 제품 수요 지속
- 한국산 제품의 인지도 향상으로 수요가 급증
 - 러시아에서 현대차 2011년 10월 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102% 증가, 연간 수입차 판매량 2위 질주
 - 카자흐스탄의 경우 국민 55%가 삼성, LG 등 국내대기업의 가전 제품 구매

□ 인프라 및 프로젝트 시장 회복 기대

- 경제성장 기반 확보, 국제행사 준비를 위한 각종 인프라 구축 사업 확대 추진
 - (러시아) 2012 APEC 정상회담, 2014 소치동계올림픽, 2018 월드컵
 - (우즈베키스탄) 철도, 도로, 상수도 등 인프라 프로젝트 확대
 - (우크라이나) 유로 2012 개최를 위한 도로, 공항, 경기장, 호텔 등 정비
 - (아제르바이잔) 공공 인프라 확충에 대규모 투자

Ⅲ.

주요 품목별 수출 전망

가. 종합

- 자동차 및 부품, 석유제품 수출 큰 폭으로 확대전망
 - 국산자동차의 경쟁력 강화와 대지진, 태국홍수 등에 따른 일본기업의 부진으로 완성차 수출이 증가하고, 이에 따른 부품수요 증대, 해외공장 생산, FTA 효과 등으로 수출 증가 지속
 - 高유가 지속 전망과 일본 지진피해에 따른 에너지 수출 증가로 석유제품 수출 호조세 예상
- 기계류, 철강, 무선기기, 가전 등은 양호한 증가세 기대
 - 아시아, CIS, 아프리카, 중남미 등 신흥국의 경제성장에 따른 기계·설비, 철강 등 자본재 수요 지속으로 수출 증가 전망
 - 무선기기, 가전제품 등도 국산품의 인지도 향상과 신흥국 중산층 등 새로운 소비층 부상에 따른 수요 확대 예상
-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품목 수출 보합세 유지
 - 세계경제 회복 지연으로 큰 폭의 수요 증가를 기대하기 어렵고 치열한 가격경쟁으로 단시일내 수출 폭 증가가 어려울 전망
 - 다만 스마트 기기 등의 공급확대에 따른 수요 증가로 수출증가세 하락은 방지할 것으로 분석
- 선박, 컴퓨터 및 주변기기 수출 감소 우려
 - 수출비중이 높은 유럽경기침체로 선박류는 다소 큰 폭으로 줄고 컴퓨터류도 스마트 기기에 따른 수요 감소로 감소 우려

나. 기계류 [3~10% 증가]

- (선진시장) 향후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 금융기관 대출여건 강화 등으로 내년도 기계수요가 큰 폭으로 회복되기는 어려울 전망
 - 북미와 유럽시장의 경우 FTA로 국산제품의 가격경쟁력 향상과 공격적인 마케팅 등으로 2011년 수준 유지 기대
 - 일본은 지진복구에 따른 수요증가, 엔고로 한국산 기계류에 대한 선호도 향상
- (신흥시장) 선진국 재정위기의 직접적 영향이 적은 BRICs지역의 수요가 여전히 유지되고, 중동, 아프리카 등도 산업설비 투자확대로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
 - 우리기업들은 對신흥국 투자진출 확대에 따른 설비 증가도 수출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분석

다. 자동차 [10% 이상 증가]

- (선진시장) 국산자동차의 인지도 향상에 따른 수요증가와 동시에 한미 FTA 발효에 따른 효과가 더해져 수출 대폭 확대 전망
 - 단 국내완성차의 해외생산 비중이 점차 확대되고 있어 장기적으로 FTA 효과는 상쇄될 것으로 예상
- (신흥 시장) 개발도상국의 新중산층의 증가와 현지화 강세 기조에 따른 가격경쟁력을 바탕으로 국산자동차에 대한 높은 수요도 지속 전망
 - 對신흥시장 자동차 수출증가율(2011년 1~10월 기준) : 중국(29.3%), 러시아(70.6%), 브라질(29.95%), 멕시코(34.39%), UAE(89.18%) 등
- 다만, 급격한 시장점유율 확대에 대한 각국의 견제도 동시에 늘어나고 있는 점은 우려 상황
 - * 선진국은 연비, 기술표준 등 비관세 장벽, 신흥국은 수입관세 인상 조치
 - * 2011년 9월 브라질 수입차 대상 공업세 30% 인상 조치 시행

라. 자동차 부품 [10% 이상 증가]

- (선진시장) 국산차 현지 판매에 따른 부품공급 확대와 경기부진으로 가격 및 품질 경쟁력을 갖춘 국산 부품의 글로벌 기업 선호 기대
 - 한-미, 한-EU FTA 발효에 따른 대표적 수혜품목, 경제위기 시 차량 교체 지연에 따른 수리용 부품 증가
- (신흥 시장) 국산차 인기지속에 따른 부품수요 동반 증가와 신흥국 진출 한국 완성차 업체 및 부품업체의 투자 확대 및 조업 호조 등으로 수요 증가 예상
 - 중동, CIS 일부지역 등 국산 중고차 수출이 활발한 지역에서의 부품수요 확대효과도 기대

마. 평판디스플레이 [0~3% 증가]

- (선진시장) 높은 실업률 지속, 주택시장 침체 등으로 소비지출이 위축되어 가전제품 수요가 감소하고 있으며 2012년 하반기 이후에야 다소 회복될 것으로 전망
 - 시장포화와 전반적인 시장수요 감소와 동시에 중국, 대만 제품의 경쟁력 강화로 2012년 수출 증가 기대가 난망
 - 파나소닉 등 일본 액정화면 제조사들은 최근 한국, 대만 경쟁사에 밀려 액정TV 분야를 대폭 축소하고 초대형 디스플레이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
- (신흥시장) 브라질, 인도, 러시아 등 주요시장에 생산 거점을 가지고 있는 국내기업들의 점유율 상승에 따른 효과로 수요 증가 예상되지만 타국기업들과의 경쟁 또한 격화될 전망
 - 중국은 7.5세대, 8.5세대 LCD 패널 생산을 시작해 내년부터 액정패널 수입관세를 기존 3~5%에서 8~12%로 인상할 예정

바. 반도체 [0~3% 증가]

- D램 수요는 2012년 상반기를 기점으로 호전될 것으로 예상되며 낸드플래시 등 비메모리 분야는 스마트 기기 수요증가로 꾸준히 성장할 것으로 전망
 - 그러나 일반 PC 수요 부진과 제조사간 치열한 경쟁과 이에 따른 가격하락으로 수익성이 단시일내 크게 개선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분석
- 동시에 미국, 유럽 등 세계경제 불안감 확대로 반도체 시장 회복에 제약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

사. 무선통신기기 및 부품 [3~10% 증가]

- 스마트 폰 시장은 2012년에도 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보이며, 그 동안 아이폰에 밀렸던 국산 스마트 폰이 미국, 유럽 등에서 선호도가 높아져 꾸준히 상승세 시현 중
 - 유럽에서는 삼성 갤럭시 S2, LG 옵티모스 듀얼코어 등의 시장 반응 양호
- 동시에 대만 HTC 경쟁업체들의 시장점유율도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수출이 큰 폭으로 확대되기는 쉽지 않은 상황
 - 또한 국내기업들의 해외생산 비중도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직접 수출 증가 효과는 그렇게 크지 않을 전망

아. 가전 및 부품 [3~10% 증가]

- (선진시장) 전반적인 시장위축에서도 국산 제품들의 품질과 인지도 제고로 시장 반응은 좋기 때문에 수요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
 - 그동안 진출이 어려웠던 일본도 한류의 긍정적인 영향으로 수요 증가 기대
 - 단, 미국, 유럽 등 주요시장의 소비심리 둔화로 큰 폭의 수요 증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

- (신흥시장) 신흥대국의 경제성장에 따른 중산층 확대로 수요가 커지고 한국산 이미지 제고로 수요 확대 전망
 - 전체적인 수요 증가에도 불구하고 현지생산 확대에 의해 실제 수출 기여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

자. 컴퓨터, 주변기기 및 부품 [0~10% 감소]

- 태블릿 PC, 스마트 폰 시장 점유율 증가로 PC, 노트북의 수요 부진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
 - 다만 신흥시장의 PC 보급 확대되어 급격한 시장이 급격하게 위축되지는 않을 전망

차. 섬유 및 의류 [3~10% 증가]

- (선진시장) FTA 발효에 따른 가격경쟁력 향상으로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전체적인 시장 침체로 인해서 큰 폭의 성장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
- (신흥시장) 선진국 경기 둔화에 따른 수요위축과 중국, 동남아 등 제품과의 치열한 가격경쟁으로 수요 증가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분석

카. 철강제품 [3~10% 증가]

- (선진시장) 경기침체에 따라 토목, 건설, 조선 등 주요 산업에서의 수요 둔화로 큰 폭의 회복세 기대 어려운 상황
 - 미국은 중국산 철강제품에 대한 반덤핑 관세로 일본, 한국산 철강 수요가 다소 높아질 것으로 예상
- (신흥시장) 중국, 브라질, 인도 등 신흥대국의 경제성장에 따른 철강제품 수요는 지속될 전망
 - 동시에 자국산 철강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비관세 장벽도 나타나고 있는 점은 수출 확대의 부정적인 측면

타. 석유화학 [3~10% 증가]

- FTA효과로 선진국 수출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나 2012년에도 선진국 제조업 경기가 회복될 가능성이 낮아 큰 폭의 증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
- 중국 등 신흥국도 對선진국 수출 둔화에 따라 수입수요가 예년에 비해서 낮을 것으로 전망
 - 다만 중국의 경우 석유화학 제품 전체소비량의 40% 이상을 수입할 정도로 수입의존도가 높아 큰 폭 하락을 저지

파. 석유제품 [10% 이상 증가]

- 경기불황에도 고유가 지속 예상, 일본 대지진에 對일본 및 기타 국가에 대한 대체수출 증가로 큰 폭의 신장세 전망
 - 대지진으로 석유제품 생산시설의 60%가 피해를 입은 일본은 2011년 3월 이후 매월 100%이상 수출이 증가세
 - 중국, 브라질, 인도네시아 등 신흥국의 수요 확대도 우리나라 석유 제품 수입 증가 전망

하. 선박류 [10% 이상 감소]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기회복기에 발주과잉과 최근 경기냉각에 따른 신규 발주량 감소로 큰 폭으로 감소하게 될 것으로 전망
 - 선주가 많은 유럽에서 재정위기로 선박금융 지원이 어려워지고 실물경기 까지 악화되고 있어 수출이 큰 폭으로 하락 우려
- 브라질, UAE 등 일부 신흥국가의 경우에는 수출증가세가 유지 될 것으로 전망
 - 브라질은 심해 유전 개발을 위한 선박, 해양 플랜트 수요 증가

Kotra Executive Brief 11-026

**해외시장에서 바라본
2012 수출전망**

발 행 인 | 오영호
편 집 인 | 박진형
발 행 처 | KOTRA
발 행 일 | 2011년 12월
주 소 | 서울시 서초구 현릉로 13
(우 137-749)
전 화 | 02) 3460-7114(대표)
홈페이지 | www.kotra.or.kr
